

“이런 기회가...” 면접 줄 섰다

채용박람회 이모저모

○...이번 취업박람회에는 LA 등 납가주는 물론 일리노이, 앨라배마, 뉴욕 등 타주에서도 지원자들이 몰렸다.

유타주 브리엄영(BYU)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태협씨는 STX에 지원했다. 이씨는 “STX가 최근 수년 사이 급성장을 해온 기업으로 알고 있다”며 “한국이 조선강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 큰 역할을 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해보고 싶다”고 말했다.

○...한인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대규모 채용박람회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도 높았다. 뉴욕라이프 허의법 매니저는 “한인 구직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취업박람회가 드물었다”며 “이번 글로

로브 아시아인 취업 박람회에 가는 기대가 크다”고 말했다.

○...이번 박람회에는 LA한인기업들도 대거 참

가했다. 뱅크카드서비스, 이앤드 켄트, 뉴욕 라이프, 프루덴셜, 액사 등 보다 수준 높은 한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회사 소개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.

○...SK, STX, 금호아시아나 등 한국 대기업 부스에는 인터뷰를 기다리는 구직자의 줄이 길게 늘어지기도 했다. 이를 본 한 관계자는 “예상보다 지원자들이 몰려들어 점심먹을 시간도 없었다”고 말했다. 또 행사 마감시간을 넘기고서도 이들 대기업 부스에는 지원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.

○... 한인 지원자들이 대부분



LA항만 경찰 인사관계자가 6일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참석자에게 항만경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아래는 박람회 참석자들이 지원기업 인사담당자로 부터 기업소개를 듣고 있는 모습.

<김상진 기자>

“그래도 대기업” 창구마다 목적 유창한 한국어 외국인도 눈길 취업비자 스폰서 질문 쏟아져

인 가운데 파란 눈의 크리스 랍슨씨가 인사원서를 들고 다녀 눈길을 끌었다. LA에서 거주하는 랍슨씨는 한국에서 5년간 경영컨설팅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.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랍슨씨는 한국기업의 경영전략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.

○...“여기 어때?”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. 특히 인터뷰를 마치고 박람회장 곳곳에 끼리 끼리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.

○...“취업비자를 스폰서 못해



주나요.” 채용박람회를 찾은 유학생들의 관심은 역시 신분문제에 집중됐다. 하지만 현지채용을 하는 대기업들도 영주권자, 시민권자들 위주의 채용정책을 펴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냈다. 이는 기업 인사담당자들도 마찬가지. 한 인사담당자는 “솔직한 인재들은 많았지만 신분문제가 걸려 입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”고 말

했다.
○...취업인터뷰는 역시 ‘정장’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 대부분이 말끔한 정장차림으로 인터뷰에 응했다. 캐주얼 복장으로 인터뷰에 응한 한 구직자는 “다들 구직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”고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. 김기정·서기원 기자
kijungkim@koreadaily.com